



France

# 샤모니 몽블랑의 화장실



글·사진 홍 하 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소설 : '외인부대원 포레앙'

샤모니 몽블랑에 간 것은 이맘때 쯤이다. 때는 4월초. 나는 파리에서부터 차를 몰아 다섯시간만에 샤모니 몽블랑에 도착했다. 프랑스의 서쪽 끝. 차가 샤모니 몽블랑 시내에 들어서자 알프스 산맥의 거대한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산 중턱에 영원히 녹지 않는 보송 빙하의 풍경도 보인다. 보송 빙하 위에는 파란색, 빨간색의 십여 개의 패러글라이딩이 날고 있다. 산을 오르는 것도 부족해서 더 높이 올라 보송 빙하를 내려다보고 싶은 젊은 이들도 있다. 이 마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고 햇살은 강철처럼 강하다.



▲ 샤모니 가는 길

시내에는 전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가롭게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바에서 맥주 한잔을 놓고 빙하를 감상하고 있다. 바로 이 마을 샤모니 몽블랑에서부터 알프스산맥이 시작된다.



▲ 샤모니 시내

알프스 산맥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 걸쳐있는 대 산맥이다. 샤모니 몽블랑엔 바로 그 유명한 해발 4807미터의 몽블랑 봉이 있다. 몽블랑은 아이저 북벽, 웅프라우 봉과 더불어 유럽의 3대 빙벽이고 전세계 알피니스트들이 한 번쯤 도전하고 싶어하는 꿈의 봉우리이다. 이 꿈의 봉우리 근처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케이블카는 산 정상 부근에서 국경이 갈란다. 산정상의 케이블카 정상에서 다른 케이블카로 갈아타면 바로 이탈리아 쪽 알프스 산 정상으로 넘어간다. 거기에서 케이블카 문이 스르륵 열리면 '보나세라(안녕)' 하고 이탈리아 세관원이 방긋 웃으며 맞이해주는 것이다.

### 닥터 파칼의 도전

산을 오르는 알피니즘이 시작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도로 내리굴을 걸 왜 올라가'

알피니즘이 시작되기 전의 인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더구나 알프스 산 정상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은 등산을 피했다.

1794년 의사 미셸 파칼은 수정채취업자인 등산가 한사람을 데리고 알프스정상 몽블랑 봉의 도전에 나섰다.

과연 산 정상에 악마가 살고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는 의사이자 과학자였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악마가 살고 있다는 따위의 전설은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알프스 산 정상에 섰다. 거기에는 두께를 알 수 없는 만년설과 만천하가 내려다보이는 장관만이 있었다. 악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닥터 파칼의 알프스 정복으로 알피니즘이 시작된다.

그후 무수한 등산가들이 알프스를 공략했고, 산 정상에 조국의 국기를 꽂았다. 이제 알피니즘은 최고의 스포츠이자, 인간한계에 도전하려는 젊은이들의 꿈이 되었다.

샤모니 몽블랑.

친구인 난도 포리니가 운영하는 디스코텍부터 먼저 찾는다. 난도 포리니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이곳에서 디스코텍 트 해피즘을 운영하고 있다.



▲ 샤모니 Dr 버카르

오후 3시.

난도는 저녁에 들이닥칠 손님들 맞기 위해 목하 청소 중이다. 동양에서부터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친구를 그가 화들짝 반긴다.

우선 그와 맥주 한잔.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얼음통에 생맥주를 가득 채우고 한잔 마셨다.

샤모니 몽블랑은 한 여름철에 가장 관광객이 많다.

한 여름에 들이닥친 관광객의 상당수는 스키어들이다. 샤모니 몽블랑은 한여름에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시즌은 다른 지역의 눈이 모두 녹아버리는 4월부터 서서히 시작된다. 유럽 전역에서 스키어들이 몰리는 것이다.

5천명이던 이 마을의 인구는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여름이면 1만5천명까지 돌파해버린다.

난도의 디스코텍에 오는 손님은 바로 그러한 스키어들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몰려온다.

과연 오후 7시가 넘자 난도의 디스코텍은 서양의 청춘남녀로 들이차기 시작한다. 입장료 1만5천원만 내면 맥주 한병을 마시면서 신나게 몇시간 동안 춤을 출 수 있는 것이다.

난도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잠시 할 일이 있다. 호텔방을 하나 잡아 봐야 하는 것이다.

샤모니 몽블랑 시내를 한바퀴 걷는다.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곳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샤모니 몽블랑도 아름다운 곳에 속한다. 여기서 스위스의 슈네브까지는 불과 30분. 이탈리아의 첫 국경마을 꾸르마요까지는 14킬로의 알프스 지하터널을 빠져나가면 된다.

알프스지하터널은 얼마전 터널속에서 자동차에 불이 나



▲ 난도포리니가 경영하는 Disco Deek



▲ 사모니 몽블랑 시내

는 바람에 14중 연쇄충돌이 생겼고 그로인해 4개월간 폐쇄되었었다. 300미터 간격으로 안전지대가 새로 설치되었고, 화재대비시설이 대폭 보강되었다.

사모니 몽블랑 시내는 산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공기는 맑고 투명하며, 달리는 차도 별로 없어 공해도 거의 없다.

곳곳의 등산용품점과 브라세리(식당), 레스토랑, 펍. 모두 그림엽서 같이 실내장식을 갖추고 손님을 맞고 있다.

내가 잡은 호텔은 난도의 디스코텍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그마한 5층짜리 호텔.

일부러 다락방을 하나 부탁했다. 다락방은 하늘로 난 천정에 창문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밤에 그 창문을 열어 놓으면 만년설이 허옇게 덮힌 보솜 빙하가 보이고 그 위로는 왕소금보다도 굵은 밤하늘의 별이 종종하듯 떠있다.

일단 방구경을 하고 침대에 누워 천정의 창도 열어보고, 그 방을 집었다. 방값은 다른 방보다 한배 반이나 비싸다. 경치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을 치루고 이제는 다시 시내를 걷는다.기념품 가게에 들러 그림엽서 몇장을 사고 펍에 들러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을 마셨다.

에스프레소.

키스보다 뜨겁고 악마처럼 독한 에스프레소 한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커피를 파는 커피숍이 이젠 제법 많이 생겼지만 5-6년전만 해도 이 커피를 파는 곳이 없었다. 니코틴 타액같은 에스프레소를 조금씩 목안에 흘려 넣는다. 독하지만 그 카페인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이 커피. 그 커피를 음미하면서 눈보라가 이는 알프스의 산 정상 P.을 바라본다.

해마다 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거의 6개월간을 방구석에 처박혀 수천매의 원고지와 씨름해야하는, 조금은 딱한 팔자를 가진 이 사나이도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과 알프스의 경치에는 그만 지난겨울의 고단함이 단순간에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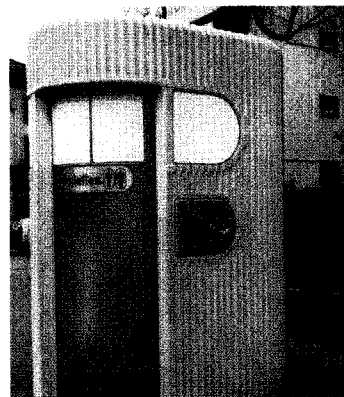
자, 이제 커피도 마셨으니 씩씩하게 난도의 디스코텍에 가서 몸을 꼬면서 흔들여 볼 시간.

**유쾌,상쾌,통쾌한 프랑스이동화장실**

난도의 디스코텍으로 몇발작 걸었는데, 아뿔사 느닷없이 오줌보가 터질 듯하다. 아까 난도가 주책없이 부어준 생맥주 한잔이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신사 체면에 수풀 속으로 찾아들 순 없고, 두눈을 번득이며 부지런히 화장실을 찾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식당화장실, 술집화장실, 기념품가게 화장실.

하지만 장사하는 집에서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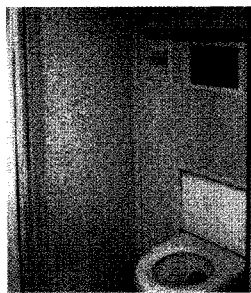


▲ 사모니 화장실 / 1회사용료 3프랑

▼ 사모니 몽블랑 시내



도 하나 팔아주지 않으면서 화장실만을 쓰기엔 웬지 염치없다. 그리하여 공중화장실을 찾기 위해 발방을 만한 눈을 굴리는데, 이윽고 전방 300미터 지점의 화장실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그곳은 바로 이동용 간이 화장실.



▲ 1회용 화장실 내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시내 곳곳에는 이동용 간이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과연, 준비성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볼 것도 없이 한손으로는 허리춤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터질 듯한 아랫배를 지긋히 누르면서 뒤통대퐁 짹 짹 거리면서 오리처럼 기어갔다. 간신히 이동용 화장실에 도착하니, 가격 3프랑(600원)이라는 안내서가 딱하니 붙어있다. 동전 3프랑을 넣어야 화장실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전장할. 서둘러 주머니 속의 동전을 뒤흠니 얼씨구 2프랑 50전밖에 없다. 하는 수없이 다시 고이춤을 붙잡고 가게로 짹 짹 거리면서 뛰어가 동전을 바꾸었다. 3프랑을 넣으니 제각하고 화장실 문이 열린다. 이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니 스프르 자동문이 닫힌다. 혹시 이게 아주 안 열리면 어떡하나, 하고 털썩 겁이 앞선다. 그러나 불일이 급하니 겨를이 없다. 일단 시원하게 봤다. 일을 보고 내부를 둘러보니, 변기 하나에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있고, 바닥이며 벽은 모두 단정, 단아하게 깔끔하다. 변기의 문을 내리니 물 나오는 속도가 마치 독이 터진

것처럼 통과하다. 그리고 안에서 달걀, 빨간 보턴을 누르니 육중한 쇠문이 스프르 소리없이 열린다. 과연 신통한 물건이려고. 프랑스 최고의 관광지답게 잘 준비된 화장실이었다. 유쾌, 상쾌, 통쾌.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관생도처럼 씩씩하게 난도의 가게로 걸어가 그날 밤 전 세계에서 모인 선남선녀들과 어울렸다.



▲ 사모니에서 만난 호주의 여학생들과 프랑스 남학생들